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 '인기'

광주시 운영 14개 지질·생태교육 1만3천명 참여 서석대 등 명소 동행해설 호응...답사·체험학습도

광주시가 야외 교과서인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질공원 동행해설, 지오스쿨 등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시는 19일 "올해 1만3천여명의 시민이 중심사지구 지질공원센터와 광주호 호수생태원, 시립수목원 등에서 14개 지질·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세계지질공원의 지구과학적 가치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맞춰 열리는 지오스쿨은 지질공원센터에서 이론과 실습을 하는 지질학 심화 학습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 6세 어린이부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오레포트쇼츠는 무등산 증심사지구 일대에서 지질명소와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현장 교육으로 진행된다.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에서 진행되는 '나도 고생물학자' 프로그램에도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크기의 육식공룡 모형(일렬로 놓인 발자국) 화석을 직접 살펴 볼 수 있고, 공룡이 달릴 때 발생하는 가속도에 대한 연구

결과 등 고생물학자들의 현장연구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지질공원 동행해설'은 지질공원해설사와 함께 서석대·임석대·광석대·덕산너덜·장봉재 등 지질명소를 동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방문객들은 지질공원 해설사들로부터 지질학적 가치, 역사문화 명소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을 보고 느끼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최근 (11월9일)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일대에서 진행된 지질 답사 및 체험학습에서는 광주지역 7개 중·고등학교 7개교 학생과 지구과학 교사 등이 참가해 무등산권역의 지질 형성사와 암석에 대해 살펴봤다.

이 밖에 지질명소 꾸미기, 지질도 퍼즐 맞추기, 내가 만드는 땅지우개, 지질명소 명칭 한자쓰기, 도전! 지오골든벨,

지질시대 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지질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또 광주호 호수생태원과 시립수목원에서는 '호수생태원에서 놀자', '뚝뚝한 로제트', '수목원에서 놀자', '환경 칼레이도사이클' 등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무등산권지질공원 누리집 (<https://geopark.gwangju.go.kr>)에서 온라인 예약으로 가능하다.

김용만 광주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지질유산은 그동안 미적 가치에만 초점을 맞춘 '보는 관광'에 그쳤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학술적 가치를 발굴해 교육적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지질공원"이라며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야외 교과서인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찾아 지질학을 재미있게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재경 기자

목포시·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선정

여가부 지정...지역 실정 맞는 체계형 여성정책 호평

전남도는 19일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에서 목포시, 나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 역량을 강화하며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 여성 일자리, 안전, 돌봄, 여성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 심사해 선정한다.

목포시는 ▲목포형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 ▲안전모니터링 및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휴일 긴급돌봄 어린이집 운영 ▲시민참여단의 마을 내 의사

결정 참여 지원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나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여성 1인 가구·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 ▲여성친화마을 안전지도 제작 ▲나주형 3051 시간제 보육사업 등 관련 정책 추진을 인정받았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은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이 행복하도록 시·군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를 통해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姜시장, 장애인 선수 취업 연계 지원 논의

장애인체육회 현장대화...생활체육 활성화 등 공감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8일 오후 광주시장에인체육회와 '공공기관 현장대화'를 갖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대화에는 광주시장에인체육회 회장 강 시장을 비롯해 한상득 수석부회장, 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대화에는 장애인 인프라 확대,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 증진, 공공·민간기업 장애인체육 선수 취업 연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올해 성공적으로 치러낸 2024파리 패럴림픽과 제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후일담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기정 시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과 꺾이지 않는 용기는 많은 감동을 준다. 선수들의 도전과 성취는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 활력과 용기를 불어넣는다"며 "패럴림픽과 전국체전 등 올해 애써준 모든 선수와 임원진, 장애인 체육회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재경 기자



19일 오후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4 전남도 이·통장 한마음대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이통장, 지역사회 안전·화합 의지 다졌다

화순서 22개 시·군 800여명 참여 한마음대회 성료

전남도는 19일 "이날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24년 이·통장 한마음대회가 열려 생명존중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지역사회 안전과 화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전국이통장연합회 전남지부 주최로 열린 행사 개회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신정훈 국회의원, 구복규 화순군수, 오형

열 화순군의회 의장, 김상모 전국이통장연합회 전남지부장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 개회식, 나눔의 장 및 오찬, 체육대회, 시상식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22개 시·군 읍·면·동이 통장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해

전남도와 이통장연합회가 하나 돼 생명존중 퍼포먼스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영록 지사는 "이·통장들께서 행정 최일선에서 세심하게 주민을 살피고 챙겨준 덕분에 전남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희생과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목북이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이·통장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상모 전국이통장연합회 전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한마음대회는 이·통장들이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더욱 단합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봉사자로서 전남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선진지 견학, 워크숍, 한마음대회 등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수험생 전남 관광 체험상품 '반값 이벤트'

도, 해상케이블카·미디어아트·짚트랙 등 4종 할인

전남도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위해 전남관광 플랫폼 앱과 연계해 대표 관광 체험상품 4종을 반값으로 제공하는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 체험상품은 목포의 탁 트인 바다와 다도해 풍경을 공중에서 감상할 수 있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여수 밤바다의 낭만을 즐기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여수 녹테마데', 대나무 숲과 빛의 조화로 독특한 야간 체험을 선사하는 '담양 달라이트', 자연 속에서 긴장감 넘치는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강진 짚트랙' 등이다. 4개 체험상품은 전남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 관광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할인 혜택은 전남관광플랫폼 앱을 통해 예약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장에서 수험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벤트는 한정된 수량인 만큼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다.

전남도는 수험생들에게 전남의 자연, 문화, 레저 등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체험할 특별한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군 브로커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